

문화정책이슈페이퍼 2호에서는 '2019년 부산 문화정책 이슈 돌아보기'를 주제로 구성해보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9년의 부산 문화예술계 이슈를 짚어보는 편집위원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이슈들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와 앞으로의 긍정적 해결책에 대한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플래너비문화예술협동조합 이승욱 대표는 '또따또가 10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창작공간의 미래'라는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창작공간이 시작된 역사와 기능부터 오늘날 또따또가의 성과까지 애정어린 시선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는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를 만나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대해 들어 보았습니다. 아울러 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사업도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올해부터 선보이는 새 코너인 <예술+OO>에서는 교육, 복지, 관광, 도시재생 등 다양한 시선에서 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예술+여성>이라는 주제로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공동대표가 적극적인 여성서사를 전달하는 예술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정책보고서 갈무리 코너에서는 지난 2018년 시행된 <부산 장애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장애문화예술인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과 정책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라는 당연한 절차의 시작을 열었다는 점에서 조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흔쾌히 원고를 적어주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필진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2019년은 여러모로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이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완결되지 못한 이슈들도 있었고, 후속 작업이 기대되는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이 문화정책이슈페이퍼라는 공론의 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됨으로써 더 나은 결과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원향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2019년 부산 문화정책 이슈 돌아보기

2019년 부산 문화예술계의 주요한 이슈들은 무엇이이었을까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비전 수립, 예술계의 성폭력 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문화예술로 지역을 살리는 문화도시 지정, 마을을 품어 안은 작은 문화공간의 등장, 문화예산을 둘러싼 갈등 등 돌아보면 명과 암이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문화정책이슈페이퍼] 2호에서는 2019년 부산 문화정책 이슈에 대한 편집위원 대담을 준비하였습니다. 갈등이 모여 공론의 시작점을 만들듯 2019년의 이슈들이 2020년의 도약의 계기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 | |
|----|--|
| 일시 | 2020. 2. 3.(월) |
| 장소 | 스페이스 움(부산 동래구) 송교성(플래너비문화예술협동조합 실장) 송진희(부산 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공동대표) |
| 참석 | 이지훈(필로아트랩 대표) 차재근(문화소통단체 슨 대표) 안재홍(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원향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
| 기록 | 윤상열(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인턴) |

원향미 · 이번 대담의 주제는 '2019년 부산 문화정책 이슈 돌아보기'입니다. 2019년 부산문화예술계 내 긍정적, 부정적 사건들을 돌아보고,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의미 있는 시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미리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보았다. 먼저 부산시, 부산문화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비전 2030 수립이 줄을 이었다. 연말에는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인정하는 시작점이라 생각된다. 또따또가 예산 삭감, 문화예술계 미투(Me Too) 등과 같은 진통도 있었다. 영역이나 장르를 넘나들고 융합하는 소위 '크리에이터',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2019년 만의 이슈라기보다 근래 몇 년간 발생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이 지역 곳곳에 생겨나고, 아트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시민과 예술가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2019년 부산 문화예술계의 이슈들을 말씀해 달라.

송진희 ·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공존하는 이슈로 성폭력예방센터가 있다. 2018년 미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9년은 대응 체계를 잡아가는 시기였는데, 모든 체계나 제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부산은 지역 최초로 자체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를 설립했다. 만들어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예산부족으로 임시 운영되는 등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2019년부터 정식 운영되었다. 이는 지자체와 민간, 예술인들이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결실이자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 예방센터가 만들어진 후 재단도 빠르게 변했다. 예를 들면 지원 사업을 할 때 성폭력 책임 서약서 작성제도를 만든 것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노력이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재단에서 예방센터를 지원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에 예산이 반액 삭감되었는데 예방센터를 만들기 위해 투여했던 노력에 비해 예산삭감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현실이 답답하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또 다른 쟁점은 예방센터가 문화예술계가 아니라 여성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 개인적으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80%가 법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예술인들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기에 성폭력 발생 시에 법적보호가 어려운 지점이 있고, 가해자가 법적 처벌이 되어도 문화예술계 내에서 활동을 제한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런 특수성과 법적 빈틈을 예술계에서 정책과 제도로 보완해 나가야지, 부서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송진희(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공동대표)

이지훈 · 그것과 연결해서, 미투 문제를 문화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엔 이런 문제도 문화가 해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문제도 과거에는 복지의 문제로 생각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문화의 문제고, 해결 역시 문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비전 2030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에는 전문가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큰 그림에 걸맞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배정 등의 구체적 결정과정에서는 소통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송교성 · 2019년에 비전이 수립되고, 성평등, 문화다양성 문제에 대해 문화적인 대응이 나왔다는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흐름이 문화라는 개념을 확장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재단에 정책연구소 센터가 만들어진 것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 해결을 시도하기 위한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2019년도에는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진 것 같다. 2020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차재근 · 사회 현상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다.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기점이 필요한데, 작년엔 미투, 또따또가, 성폭력 예방센터 예산 삭감 등 다양한 계기점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사태가 새로운 형식으로 예술가들이 자신을 표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예술가들이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없던 충동도 일어났지만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거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의 계기점이 사회의 판을 좋은 방향으로 뒤엎은 것처럼 예술계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좋은 방향으로 판을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구체적 플랜 필요

이지훈 ·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것은 시민, 예술가, 시에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지금 시정 전반에 사회적 가치 확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술 영역 예산 삭감에 대한 변명거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창작지원 정책은 예술가 지원 중심이었고 예술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인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 확산 정책은 이에 비해 경비가 더 든다. 사회적 가치 확산 정책은 아까 언급한 낙수 정책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예술 활동과 예술가들의 콜라보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 예술 활동을 진흥시켜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 자칫하면 '시민들을 위한 예술 축제 한마당' 같은 축제를 한 번 해주고 '시민들을 위해 해줬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공교육과 공공 인프라와의 연계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고, 이런 시각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예술 활동과 예술가들의 콜라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송진희 · 부산문화예술계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데, 성평등은 현재 사회가 요구하고 지향하는 가치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부산에서도 다방면으로 성평등 정책과 이슈에 대한 논의들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위원회 내 성평등위원회가 꾸려진 것도 향후 성평등 과제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문화예술계 전반의 정책과 사업에 필수적으로 성평등 전략과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의사결정구조에서 발생하는 유리천장, 예술인들의 돌봄노동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세밀한 상황까지 논의하는 포럼을 열고 연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성평등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부족하다. 2020년에는 문화예술계에서 성평등 연구와 포럼들을 통해서 관련 이슈들을 알리고,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송교성(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실장)



이지훈(필로아트랩 대표)

이지훈 ·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성은 부족한 것 같다. 시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해도 시민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안재홍 ·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지역 소극장 폐관문제와 같이 기초 문화 생태계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관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지훈 · 시민 중심으로 가려면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공교육과 공공인프라다. 공공인프라 속에 민간 소극장도 들어간다. 이런 관점에서 소극장을 지원해주고 시민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짜야한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라 생소하지만, 앞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가치 확산 정책이 기존의 창작지원 정책보다 예산이 더 든다고 했는데, 시민의 예술 활동을 공공 차원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이 과정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 그래서 자발적 예술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진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속가능하면서 공고한 민·관 협치의 신뢰 체계 구축을 위하여

송교성 · 또따또가 예산삭감문제는 또따또가의 발전방향에 대한 장기적 계획 부재의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인 중 하나가 또따또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부재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본다. 또따또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창작공간 중심으로만 한정되어 바라보는 것을 지역적 차원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따또가와 성폭력예방센터 예산삭감 문제의 근본은 소통과 거버넌스 체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동안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쌓아놓았던 거버넌스 신뢰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이지훈 · 부정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각성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부정적 사건이 터지고 그것이 건설적인 에너지로 나타난 것은 미투 운동 밖에 없다.

송진희 ·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목소리를 끌어낼 수 있는 건 맞지만,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거버넌스 구조에 소통이 안됐을 때에 대한 이후 대응이 부족하다. 목소리를 내고 문제제기를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거버넌스에 있어 참여보단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위원회 결성, 권한 등에 대한 구체성이 필요하다.

차재근 · 사실 예전부터 시와의 거버넌스 구조 형성은 쉽지 않았다. 집행하는 입장과 의사소통하는 입장의 차이로 인해 거버넌스 구조가 요원했지만 의견 교환 정도의 의미 있는 시도들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도들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체계적이지도 않다.

집행 단위에서 시민의 생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시의회에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과 의견수렴을 하고, 최고 결정자는 가장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결정해버리고 접근하는 것 같다. 거버넌스가 없어지고 있는 것은 크나큰 문제다. 서로 뭘 원하는지 대화조차 안하고 있다. SNS는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는 공간으로밖에 이용하지 않는다.

원항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현장소통 회의록이 바로바로 공개되는 것처럼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먼저 시작해야 한다. 문화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활발한 소통이 가능한 구조다. 현재 자신의 활동이나 사회와의 연결고리에 대해 고민하는 예술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흐름이 하나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소통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실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차재근(문화소통단체 숲 대표)



금정구 문화공간네트워크 아트페스타 스푼
©금정문화재단

지역과 시민의 틈을 파고드는 문화예술의 의미있는 시도들

안재홍 · 마무리를 하면서, 2019년 부산 문화계에서 작지만 의미 있었던 시도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덧붙여, 신 크리에이터의 등장이나 골목 예술가들이 보여주었던 새로운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송교성 · 작지만 의미 있었던 시도로 소규모 문화 공간들의 활동이 있었다. 모퉁이 극장의 중구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한성1918, 부산문화재단의 부산을 변화시키는 예술, 맘미단길 형성 등이 의미 있었던 시도라고 생각한다.

원항미 · 금정구에서도 갤러리, 서점 등 소규모 문화 공간 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아트마켓을 여는 등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작은 곳에서 문화예술 관련 공간이 점점 형성되고 있고 그들 간의 연대가 생겨나고 있다.

이지훈 · 맘미동에서 서점 중심으로 좋은 문화공간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F1963이 만들어진 것과 같

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F1963이 공공인프라로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라고 생각한다, 공공적 차원에서는 씨앗을 제공해 주었고, 그 씨앗과 시민들의 자발적 예술 활동이 결합된, 사회적 가치 확산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다.

안재홍 · 지금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분권이다. 문화예산이 시비로 전환되는 부분이 주목해야 할 지점인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재단 차원에서는 예술지원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다.

송진희 · 사회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관한 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면서 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 리터러시(literacy)¹⁾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작년 문화다양성사업에서도 지역 언론에서 장애, 이주민, 젠더 문제를 기사화할 때 드러나는 성별고정관념, 차별적 표현 등을 분석한 리터러시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될 거 같다.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리터러시의 역할이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원항미 · 문화예술 생태계의 단위가 자치구 단위까지 작아지고 있는 것 같다. 문화도시라는 사업을 통해서 자치구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생태계가 기능할 수 있는 전환점들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차재근 · 부산 예술가들과 함께 어우러져 부산에 와서 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면 좋겠다. 예술인들에게는 예술 하기 좋은 도시, 시민들에게는 예술을 즐기 좋은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문예진흥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정보를 잘 알려 지역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면 좋겠다.

1)사전적 의미는 읽고 쓰는 능력.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함.

부산 복합문화공간 소개 - 스페이스 음



스페이스음은 2011년 개관한 동래구 명륜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예술가와 시민들이 스스럼없이 만나고, 시민들이 문화애호가와 예술 소비자로서 나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공간은 카페,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주자와 관객이 직접 소통, 교감할 수 있도록 작은 음악회를 370여 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의 신진 작가전 및 설치전 등 120여회의 전시와 20여회의 크고 작은 국제교류 음악회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106 / 051-557-3369 / www.spaceum.kr

또따또가 10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창작공간의 미래



또따또가 아데코 포럼행사 HAMONIM
©또따또가 지원센터

지난해 말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운영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문화예술계에 논란이 불거졌다. 또따또가 운영에 대한 시의회 감사과정에서 예술가와 예술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이 나오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우려와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건너내면 결국 이 문제는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정당성, 창작공간의 가치와 의미, 또따또가의 향후 발전방향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주제와도 맞닿아 있다.

창작공간은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무료 혹은 실비로 거주할 수 있는 작업실을 제공하여 개인 혹은 공동 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창작공간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형식으로 실험되기 시작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한 팔각정 창작스튜디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논산 창작스튜디오 등 공공기관이 설립한 창작공간뿐만 아니라 씬지스튜디오와 경안창작스튜디오 등 기업이 후원하는 창작공간, 대안공간 풀, 구산동 오픈스튜디오와 같이 대안공간이 주도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시도됐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국에 걸쳐 다양한 창작공간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확산됐는데 초기에는 시각예술 중심의 창작공간이 주류를 이뤘지만 서울시의 흥은창작센터와 연희문화창작촌 등과 같이 공연예술과 문학 등 다양한 장르로 확대되고 있다.

창작공간의 정책적 취지와 목표는 크게 두 가지 방향, '예술가들의 창작 및 교류 촉진'과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향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창작공간은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마련해주고 다수의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예술가들이

이승욱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자신의 작업과정이나 새로운 작업의 성과를 오픈스튜디오나 다양한 리뷰행사를 통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새로운 예술적 체험과 소통의 기회를, 예술가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계기를 가지게 되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창작공간의 활동은 공연이나 전시라는 형식을 통해 결과물만 보여주는 기존 문화공간, 공연장이나 미술관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넘어 안정적인 창작환경의 제공, 예술가들 사이의 다양한 교류의 촉진, 예술가와 시민들의 교감을 통해 '과정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고 건강한 예술 생태계의 형성을 지향한다.

또따또가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화예술을 통해 쇠퇴하는 부산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역 내 유희상가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초기 18개소 35개 작업실로 시작한 또따또가는 현재 26개소 80실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해서 현재 200여명 넘는 작가들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다. 3년 주기로 새로 입주작가를 모집하는데 입주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비로 작업실을 마련하여 이 지역에 정착한 작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9년부터 또따또가 출신의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원도심예술가협동조합'에서 직접 또따또가의 운영을 맡고 있다. 정주 예술가들의 증가와 자발적인 네트워크 형성은 입주기간 이후에는 흩어져 그 성과가 단절되는 다른 창작공간과 달리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또따또가의 생명력과 지속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따또가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소통과 연계라는 측면에서 다른 창작공간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미 지역문화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멕시코 국제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또따또가에 입주한 많은 작가들도 다양한 장르와 분야의 예술가들과 폭넓은 교류와 협업, 원도심의 독특한 정체성과 아우라가 자신들의 작업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한다. 최근 창작공간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제도화되면서 초기의 활력을 잃고 주기적으로 입주 작가를 모집하고 형식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문화예술 실천에서 창작공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을 기대한다.

예술가가 소외받지 않는 사회안전망의 시작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인터뷰어 차재근 문화소통단체 숲 대표



차재근 · 대표님, 반갑습니다. 2018년 2월 이후에 취임 2년차를 맞이하셨는데 그동안 추진하셨던 사업성과와 아쉬운 점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섭 · 2018년도 2월 23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 2년이 되었는데, 성과라던 재단 사업이 양적으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2018년 재단 예산이 300억 정도였고 2019년도 400억, 올해는 700억 정도가 되어 예산으로만 봐도 굉장히 늘어났지요.

그리고 예술인들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던 용자사업인 예술인복지금고가 있는데, 기재부 예산 배분과정에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2019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 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 주요한 성과일 것입니다. 원래 용자 사업과 더불어 예술인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들에게 고용 보험이 적용되는 취지의 사업도 있었는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차재근 · 예술인복지재단이 처음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 복지와의 차별성 논란도 많았는데 8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 예술 활동을 하

는 사람으로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문화부와 국토부 등이 협력해서 예술인 마을을 만들어 창작지원뿐만 아니라 주거도 지원하는 등 예술지원방식이 다각화되고, 새로운 지원사업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주거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의 지원이 있습니까?

정희섭 · 현재도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격에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도 있고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중에 전세 보증금 상품도 포함되어 있고, 보증금의 한도도 올해는 1억으로 늘었습니다. 주택문제는 기존의 공공사업에 예술인들이 입주 자격을 갖게 되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차재근 ·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을 오랜 기간 하셨는데 예술인 복지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과 선결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정희섭 · 예술인복지법이나 예술인복지재단이 출발한 계기도 그렇고, 예술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자주 언론에 비춰지면서 일반 사회



차재근
(문화소통단체 숲 대표)

고, 자연스럽게 창작품의 수준도 떨어질 수 있겠지요. 예술의 창작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납입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서 예술분야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섭 · 이 문제도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업 급여의 원래적인 뜻은 실업 기간 동안 다른 수입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예술인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든 뭐든 끊임없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잡혀 있는데 이를 왜 실업으로 보아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자신의 수익만큼 불입을 하고 납입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 식인데 과연 현재 예술인들이 얼마나 납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공적인 보조가 일부 들어가겠지만 급여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급여의 50% 수준에서 실업급여를 180만원 받는다면 3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달에 50만원씩 받으려면 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차재근 · 요즘은 생활 임금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생활 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급여가 적더라도 생활임금제도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 등은 어떻습니까?

정희섭 ·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노동환경이 복잡하고 불명확한 점이 있기에 도입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차재근 · 현재 지자체하고 매칭하는 프로젝트들은 있습니까?

정희섭 · 지금 준비 중인데 각 지역마다 예술인 복지 지원 센터 개념으로 일종의 전달 체계를 정비한다 할까요? 작년에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 신청하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예산을 만들고 지자체에서는 공간이나 인력을 배치하는 형태의 사업을 설계, 추진했었는데 잘 안됐습니다. 올해부터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의 일정 부분을 지역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지사업처럼 가난한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복지사업은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이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 보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예술이라는 직업은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설계된 한국의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된 측면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저작권으로 대표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익을 옹호하고 확장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재근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술 활동이나 예술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지원 받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한데, 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복지재단이라는 명칭도 예술인권리재단 등과 같이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섭 · 적극 동의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국회에서 추진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재단의 명칭도 예술인권리지원재단 등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명칭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재단의 정체성이 더 명확히 드러나겠지요.

차재근 · 예술가의 경우 프로젝트에 따라 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계약이 있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으면 생활여건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예술가들은 투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없으니까 계속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구조가 되어 요즘은 연극의 경우 배우들 연습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연습이 어려워지

차재근 · 복지재단 사업 설명회를 열어 예술인들한테 새로운 사업을 제안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희섭 · 좋은 제안인 것 같네요. 예술인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논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단에서는 작년에 예술 현장과의 높이를 맞추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산하에 몇 분야의 소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 소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 논의나 예술 현장과의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 아이디어 제안들도 자연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재단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예술인들의 참여 통로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나 노동 부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위원회나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술계 대표가 참여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예술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술계가 참여하는 장이 더 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근 · 예술가들이 법무부 위원회 같은 곳에 참여하면 교도소환경을 바꾸거나 제소자들을 위해 예술가들이 제안할 것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창구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정부 부처 위원회 등에 들어가서 예술의 중요성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복지 재단이 하나의 창구가 돼서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예술로(路) 사업>도 직장인과 예술가가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 프로그램이든 제도든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정희섭 · 예술인 고용보험도 국회 입법 후 시행령 준비 등의 과정이 차질 없도록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취임 전부터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수도권 집중성에 관한 지역 예술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역 설명회도 추진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창작준비지원금에 농어촌 거주 예술인들에게 가점을 주는 체계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개념으로 접근했었지

만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역차별 문제도 있고 해서 농어촌 지원법에 근거해서 제도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 계약을 중심으로 저작권이나 예술인의 권익 교육활동, 세무 교육 등을 했었는데요, 예술인들이 수입이 적어도 개인사업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세무 교육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노동법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해 예비 예술인인 예술대학 재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금융 교육이나 전세자금 용자에 따른 부동산 정보들처럼 생활 관련 교육들과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보험 관련 교육 등을 고민 중입니다.

차재근 · 연세가 있으신 원로예술가들에게 저작권 같은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교육이나 계약 대행 등을 지원하면 예술가들에게 학습도 되고,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고,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정희섭 · 좋은 제안입니다. 예술가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직업적 권리 부분은 확대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티스트피(artist fee)처럼 예술가의 노동과 작업의 대가를 제대로 받기 위한 많은 케이스가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역할 중 하나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술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재단이 이해 당사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최근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생겨나서 매니지먼트 권리 옹호도 하고, 개별 예술가가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행정 기관과의 접촉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계에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면서 공공 기관이 가지는 행정적 제약을 넘어서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 향후 잘 발전해서 예술가들이 자기 권리를 확보하고 매니지먼트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재근 · 마지막으로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정희섭 · 예술인 복지가 새로운 정책 이슈로 많이 떠오르는데 각 지역마다 정책적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복지 지원이 아니라 권리, 권익 지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복지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를 강조하다보면 예술인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자꾸만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출발은 공연을 하는 예술인들의 공연이 늦게 끝나거나 주말에 열리니까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오픈시간을 예술가들의 활동에 맞추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대학로와 마포 두 군데에 어린이집을 개설했는데 다른 곳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예술인들의 생활 리듬에 맞는 어린이집 사업을 하면 되는데 어린이집 모델이 전부 맞벌이 부부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용 시간이 잘 안 맞고, 또한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재직증명서를 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은 재직을 증명받기 힘든 구조하기에 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재직증명서로 갈음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다행히 올 3월부터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같은 문제도 예술인을 위한 산재 시스템을 별도 운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존 산재 시스템에 예술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급한 대로 산재전문병원인 녹색병원과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MOU를 맺어서 예술가들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예술인만의 별도 복지 사업이 아니라 기존 복지정책에 예술가들을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가, 행정적인 제도적 장벽을 어떻게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재근 · 예술이 직업으로堂堂하게 인정받고 일반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 예술가들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예술인복지재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가들이堂堂하게 자기 직업으로서의 예술을 지속하고 많은 시민들이 인정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재단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섭 ·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0년 예술인 지원사업

| 사업명 | 지원내용개요 | 공고일 |
|--------------------------|--|----------------------|
|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디딤돌 | · 창작준비금 지원 1인당 연 300만원 | (1차)2월 중 (2차)7월 중 |
|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로 | [리더예술인] · 예술로 사업 총 910만원(6.5개월) · 예술로 기획사업 총 420~840만원(3~6개월) [참여예술인] · 예술로 사업 총 720만원(6개월) · 예술로 기획사업 총 360~720만원(3~6개월) | 2월 중 |
| 예술인 신문고 | [상담·신고·조사·조정·소송] 불공정 계약, 수익배분 거부, 지연 등 불공정행위 | 상시 |
|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지원 | · 현업·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지원 | 상시 |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 [개인 프로그램] 심리검사, 상담(12회 한도) [단체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 비용 | 3월 중 |
|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지원 | [피해 신고상담 접수] [피해 지원 연계] · 법률 지원, 심리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기타 관련기관 연계 | 상시 |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의 40~50% 지원 (보수 179만원 한도) | 3월 중 |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 | · 가입 및 보험 사무대행 · 납부보험료 50~90% 환급 | 상시 |
| 예술인 의료비 지원 | 예술인 의료비 지원(1인 최대 500만원) | 상시 |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용자 |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 예술인전세자금대출(최대 8,00만원) ※ 대출한도 변동 가능 | 상시 |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예술에는 성별이 없다.

여성들에게 참정권과 교육권, 노동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당시, 예술의 영역에서도 예술교육은 물론이고 예술가 조합이나 아카데미, 아틀리에에 여성은 참여할 수 없었다. 그 시대를 다룬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미술아카데미에 자신의 그림을 출품해야만 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우리가 배워온 서양미술사 작품에서 여성을 누드상태의 수동적인 포즈로 그린 이유도 다수의 남성 화가들 시선에서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존재, 미적인 아름다움의 대상, 때로는 유혹하는 존재로서 대상화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부터 공적영역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페미니즘운동의 물결이 불거지면서 버지니아 울프, 시몬 드 보부아르 등의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서 수동적인 여성성을 해체하고 차별과 억압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폭력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될수록 예술은 그 목소리를 알리는 매개가 되어주었다.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살인사건에서 2018년 미투운동을 겪으면서 한국사회도 만연한 페미사이드¹⁾와 성폭력 문화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예술은 그 변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로서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여성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읽어내는 여성서사의 흐름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전쟁에 참전했지만 이름도 얼굴도 남겨지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기존 남성중심의 전쟁서사가 지워왔던 장면을 살려낸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는 6.25전쟁 이후의 베이비부머(baby boomer)세대로 집안의 가장이자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했지만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의 삶을 재조명하는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의 구술인터뷰집이 출간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은 여

송진희 부산 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공동 대표

성의 관점을 통해서 국가, 정치, 계급, 노동, 역사 등을 해석하며 보편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자기역사쓰기라는 하나의 장르를 개척해내고 있다. 여성들의 자기역사쓰기는 생활예술, 지역커뮤니티의 영역에서 더욱 확장되어 대전지역 청년커뮤니티 <BOSHU>, 지리산 생활예술공동체 <문화기획 달>, 전주 여성생활문화공간협동조합 <비비> 등 지역, 청년, 비혼, 공동체를 주제로 여성들의 돌봄 노동, 터부시되었던 몸의 언어, 대안적 비혼 공동체 등 다양한 서사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있다. 가부장제가 부여한 성별 역할 고정관념의 돌레를 뚫고 말하고, 쓰고,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성서사는 탄생하고, 여성서사가 예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성평등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백마 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나약한 공주서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하는 주체로서 여성을 그려내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예술은 그 매개로서 중요한 역할을 띄고 있다. 왜곡된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살아있는 한 인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발굴하는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희망해본다.

더불어 예술을 통해서 성평등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면 예술정책과 예술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빠른 시대적 흐름에 비해 정책과 현장은 아직 과도기적 상태에 머물러있다. 2019년 한국성평등소위원회에서 추진한 '한국영화산업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개봉한 1,433편의 영화 스태프 성비 비율은 의상과 분장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영역에서 남성성비가 월등히 높았다. 또한 2019년 아르코 예술지원사업의 성비통계결과 규모가 큰 사업과, 단체대표에 있어 여성예술가들의 참여가 현저히 줄었다. 이러한 성비격차는 통계에 그치지 않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최종 후보자 전원이 50세 이상의 남성으로 정해지는 결과를 낳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여 최종후보

자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다시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의 현실은 아직도 성별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던 17세기 예술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예술현장의 성평등 팩트 체크는 지속적인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문체부가 성평등 정책을 중요한 비전으로 전면에 부각시켰던 것에 반해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에서 성평등 정책이 소외되어 있는 지점이 현재의 상황이지만, 지역문화재단에서도 예술인복지실태조사와 예술지원사업에 따른 성비분석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연구가 선행되길 기대한다. 이제 문화예술계는 성 주류화²⁾가 정책의 핵심 과제이다. 예술계에 평등한 기회가 제공될 때, 예술의 사회적 역할도 확대되며 더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도착할 것이다.

1) 여성이라는 이유로 연애·동거·혼인 상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을 가리켜 '페미사이드'라고 정의하고 있다. 1976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차 여성대상범죄 국제재판에서 여성학자 다이애나 러셀(Diana E. H. Russell)은 페미사이드에 대해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정의한 바 있다.

2)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 시스템 운영 전반에 성평등관점이 반영되는 것

부산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원항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시작하며

부산문화재단에서는 2012년부터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 안 소수자들의 문화적 표현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시행해왔다. 특히 2018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산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7년에는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조례가 제정되는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장기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으로 수렴되기 위해서는 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고, 그에 따라 2018년 부산문화재단은 ‘부산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어떻게 설계되었나

조사기간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조사대상은 14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부산 거주 및 부산지역 활동 장애 문화예술인 330명이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부산을 기반으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장애 문화예술인으로, 연령과 경력 제한을 두지 않았고 전업예술인 뿐만 아니라 동아리 등 비전업 예술활동인, 중고등 학생기에 있거나 예술분야를 전공하는 장애학생들까지 포함하였다. 학교, 복지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파악된 조사대상자들에게 문화예술활동 및 형태, 문화예술 접근성 및 공간, 교류 및 협업영역, 교육영역, 창작여건 및 인식, 인구통계학적 문항, 예술활동 관련 사회경제활동 등 7개 영역 총 47문항의 설문을 시행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

먼저, 응답자의 문화예술 활동 형태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28.2%가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고 동아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발표나 전시를 수행한 경우가 28% 정도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스스로 자각하는 예술적 능력에 대한 평가는 ‘대중 앞에서 발표해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 28.2%, ‘가족과 친지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수준’ 25.4%로, 예술적 성취에 대한 긍정적 자각이 높은 편이었다. 장애 문화예술인의 예술적 재능 발견 시기는 성인기 이후가 42.4%로 나타났는데, 비장애인에 비해 예술적 재능 발견의 기회가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장애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목표는 ‘개인의 행복 추구(37.2%)와, ‘사회 참여 및 교류(21.7%)가 높은 비율로 도출되었다. 예술활동의 의미가 개인적 성취와 더불어 사회적 활동 및 교류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작여건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원받은 기관은 60.6%가 ‘복지관’이라고 응답하였고, 지원형태는 ‘공간지원(25.4%)’, ‘공연비/전시지원비 지원(23.9%)’, ‘강사 지원(2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은 ‘10~50만원 미만’이 38.2%, ‘10만원 미만’이 26.5%로 나타났다. 예술인패스와 부산문화재단의 인지여부 또한 ‘모른다’가 각각 86.1%, 60.4%로 나타나 예술지원 관련 정보 전달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장애 문화예술인이 활발히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응답자의 22.4%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꼽았고, ‘연습 및 창작공간 확보(18.1%)와 ‘사회적 인식제고(16.9%)’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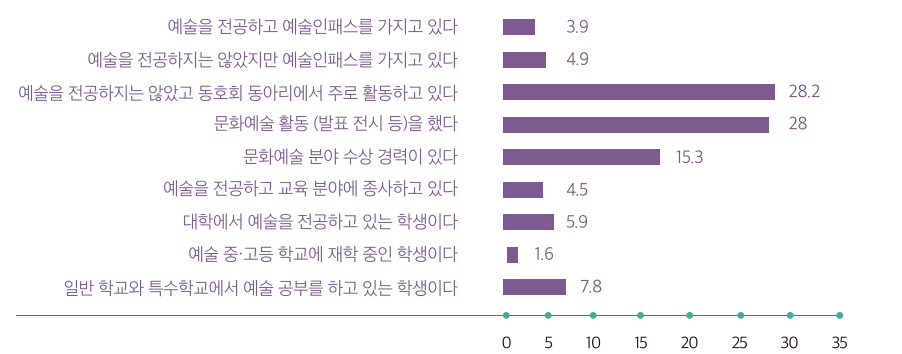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첫걸음

그동안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전국단위의 조사는 있어왔지만, 지역 단위에서의 조사는 드물었다. 특히 지역 차원의 장애 문화예술활동 정책에 대하여 정책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애인복지영역에서 부문적인 차원에 머무르거나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이 부산지역 장애 문화예술인의 모든 상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경로로 부산지역 장애 문화예술인의 현황을 파악한 것은 유의미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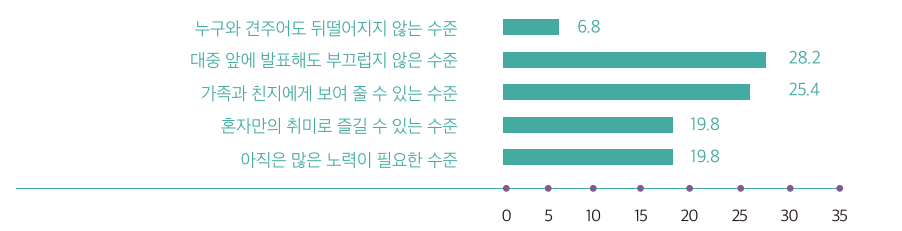
부산 장애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의 시작

문화기본법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문화 향유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문화권)를 천명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정책도 장애인들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2017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조례의 목적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이다. 조례에서는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을 비롯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교육 추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정책 당사자의 실질적인 요구와 겹치는 것임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산 장애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이 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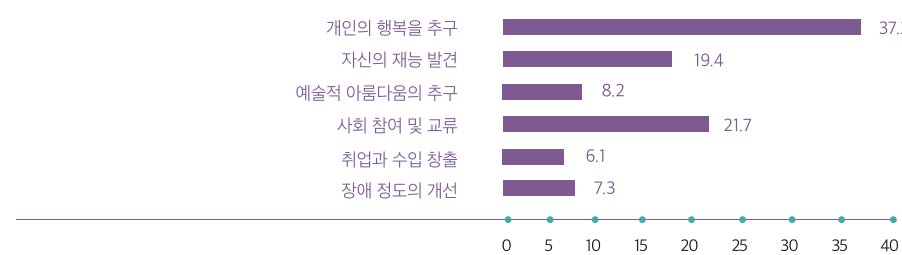
응답자의 문화예술 활동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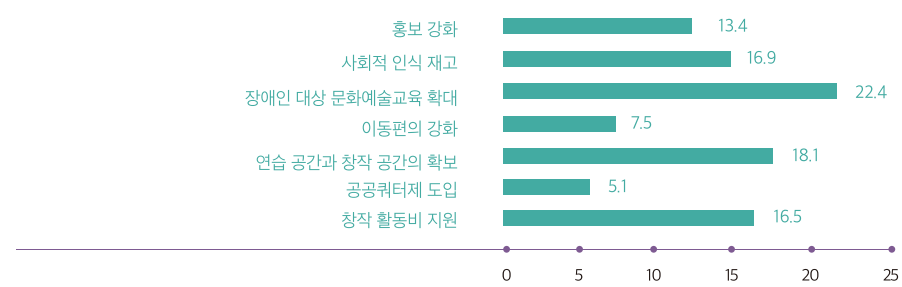
스스로 자각하는 예술의 성취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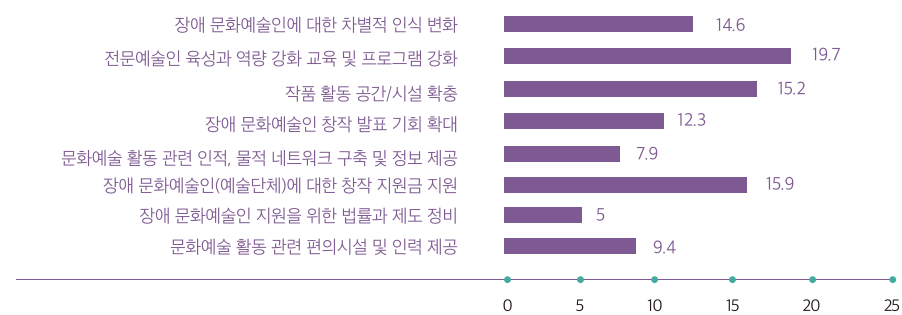
장애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의 목표는?(%)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요구사항(%)



장애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산시의 정책은?(%)



부산문화재단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행사 “예술교육 온종일 파티” (12.03)
부산문화재단은 지난 12월 7일 <예술교육 온종일 파티>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예술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부산문화재단, 2020년 부산문화예술지원 사업 공고 시작 (12.03)
부산문화재단은 2020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본 사업은 지역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전문인의 기초예술창작활동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서부산을 잇는 부산문화재단 기획전시 <Rainbow-Wire> F1963에서 개최 (12.19)
부산문화재단은 오는 12월 20일부터 1월 19일까지 F1963에서 기획전시 <Rainbow-Wire>를 개최했다. 전시는 F1963의 재생공간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2020년 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육성지원사업 추진 박차 (01.22)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지역 청년예술가의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과 기획자 등 청년활동가들의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2020년도 청년문화육성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지역진흥문화기본계획 4대 전략, 15개 과제 의견 수렴 (12.10)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1일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종합토론회에서는 제2차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문화 유관 기관 및 활동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년도 문체부 예산 6조 4,803억 원으로 최종 확정 (12.11)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도 예산이 6조 4,80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 출범 이래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올해 예산 5조 9,233억 원 대비 5,570억 원(9.4%) 증액된 규모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문화예술교육 포럼> 개최 '서울어젠다 10년, 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12.10)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12월 17일 <2019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2020년 서울어젠다 선언 10주년을 한 해 앞두고 국내외 목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에 기반한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 개최 (12.13)
현장소통소위는 현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을 긴급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를 예술현장의 공론화 주제로 논의하기 위해 12월 19일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7개 문화예술기관 합동 신년 하례회 개최 (01.06)
2020년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 대표 문화예술기관 7곳이 합동으로 신년 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 하례회는 향후 기관간의 유기적인 업무제휴를 위한 기관간 임직원들의 상호 이해와 소통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본격적 활동 시작 (01.3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월 30일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강의력 향상과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다.

강원 작가의 방(Gangwon Story House) 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01.29)
강원문화재단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여성수련원과 「강원 작가의 방(Gangwon Story House)」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예술인지원센터 《경기예술인포럼 2019》 개최 (12.09)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예술인지원센터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예술인 지원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예술인포럼 2019》를 12월 11일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 해를 전반적으로 리뷰하고 향후 사업 방향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연으로 구성했다.

경남예술인 연간 예술활동 수입 530만원 불과 (12.27)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경남에서 거주·활동하는 예술인 1,500명을 대상으로 경남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예술활동을 통한 평균 연간 수입은 530만원에 불과했으며, 예술인 절반 이상이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지만 면적은 10평 미만이 70%를 차지했다.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첫 공동 디렉토리북 출간 (01.08)
광주문화재단·비엔날레·광주시립미술관 등 지역 주요 문화기관으로 구성된 광주문화기관협의회가 광주 문화 분야 기관, 단체에 대한 정보를 망라한 '광주 문화기관·단체 디렉토리북'을 발간했다.

문화예술 정책공유를 위한 문화포럼 개최 (12.06)
대구문화재단은 12월 13일 '문화창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정책공유회 형태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에서 대구예술인지원체제와 대구시민 문화적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강원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예술-과학 융복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2.18)

대전문화재단은 예술-과학 융복합 예술프로젝트 '아티언스 대전'사업 발전을 위해 12월 1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의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문을 구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문화재단

<전통연희 증강랩(LAB)> 과정공유회 '매듭' 개최 (12.05)

서울문화재단은 <전통연희 증강랩(LAB)> 과정공유회 "매듭"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했다. 2019년 새롭게 추진된 서울시 연희단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동시대 연희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세종시문화재단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결과발표회' 개최 (12.24)

세종시문화재단은 12월 7일 「2019년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세종시문화재단은 청소년들이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문화재단

2019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3기 기획자 배출 (12.20)

울산문화재단은 "2019 울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약칭 UCGA)" 성과확대 행사 '파이널캠프'를 12월 20일 개최하였다. 울산문화재단은 UCGA사업을 통해 2019년 26명의 지역문화기획자를 배출하였다.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의 15년을 한자리에: 2019 인천문화포럼 성과공유회 x 인천문화재단 창립 15주년 기념식 (12.02)

인천문화재단이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12월 4일 2019 인천문화포럼 성과공유회와 함께 인천문화재단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2019년 인천문화포럼은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분과별 진행결과와 정책제안사항을 선보였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기관 표창) 수상 (12.24)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예술인 복지사업의 운영 성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재단은 예술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환경보장에서부터 예술분야 창작결과물의 질적 보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예술인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JFAC 미래 문화예술사업 공유집담회 마쳐 "지역예술 현장과의 밀착도와 정책기관의 실행력 높여야" (12.16)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난 11일 진행한 공유집담회 'JFAC, 문화예술사업의 미래를 짚어보다'가 마무리됐다. 이번 집담회는 재단 문화예술사업 중기 추진전략에 대한 지역문화주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충북문화재단, 2020년 비전·전략목표 수립 (01.01)

충북문화재단은 지난 27일 제29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2020년 사업계획 및 회계에 관한 심의·의결을 확정하고 비전 및 전략목표를 수립했다. 2020년 재단은 '도약하는 창의 예술, 소통하는 충북 문화' 비전을 기반으로 5대 전략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했다.

기부와 광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공유가치 창출 (12.17)

부산관광공사는 17일 반송중합사복지관에서 "반송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마을지킴이 네트워크"(이하 반송 네트워크)와 「공유가치창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품 수집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량리어카 5대를 기부했다.

'살아있네 부산곰장어' 널리 알려요 (01.07)

부산시는 해마다 소상공업종 대상으로 부산형 유망업종을 발굴해 업종에 특화된 마케팅을 펼쳐 업종 동반성장과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2020년에는 로컬푸드 중 곰장어요리를 선정하고 『살아있네, 부산곰장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개발하는 등 본격 홍보에 나섰다.

모두가 안전한 우리 동네, 안심마을 조성사업 완료 (01.30)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은 '2019 안심마을(CPTED)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동구, 연제구, 수영구 등 3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물리, 사회학적 조사 및 범죄 불안감 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를 진행하여 지난 12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산복도로의 어제와 오늘' 부산학센터 연구총서 발간 (01.06)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는 '산복도로의 어제와 오늘'을 발간했다. 시민총서로 발간된 '산복도로의 어제와 오늘'은 산복도로에 대한 다양한 정책 시행 이후의 변화와 오늘날 모습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부산만이 가진 독특한 장소성에 대한 미래 가치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

2020 부산학 연구과제 공모 (01.20)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가 '2020년 부산학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지난 17년간 부산의 지역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인문학적 관심을 확산시켜온 부산학연구센터는 지역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참여를 통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부산관광공사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연구원

발행일: 2020.02.20. | 발행인: 강동수 |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 051-745-7205~7 www.bsfc.or.kr | 편집위원: 송교성 송진희 이지훈 차재근 | 편집기획: 안재홍 원항미 | 디자인 제작: 순간과영원 TEL 051-244-7504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